경기신문

2016년 04월 26일 (화)
02면 종합

임진강 철책길 순찰로 걸으며 봄을 느끼자

파주서 30일 '걷기행사' 열려

그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걷는 올해 첫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오는 30일 파주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30일 오전 10시부터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가족, 일반인, 동호회 등 1천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와 장산전망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율곡습지공원으로 돌아오는 9㎞ 코스다.

특히 군사작전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봉쇄된 임진강변 철책 순찰로 임진각~율곡습지공원 구간이 걷기 코스에 포함됐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지 44년만에 일반에 개방되는 셈이다.

행사에서는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다짐과 소원이 적힌 종이를 받아 출·도착지 펜스에 전시하는 Wish Your Dream △대형종이꽃을 철책에 달아 평화를 기원해보는 Peacealways beautiful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 영화배우 이광기씨와 박원휘 학생이 참가자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이자 건강 전도사인 아놀드 홍도 걷기 전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운동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DMZ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자리도 마련, 참가자들이 걸을 때 마다 참가비의 일부가 DMZ일원 환경보전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되며 학생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봉사활동(봉사활동 3시간 인정)을 실시하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

23.8 X 5.8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26일 (화)
03B면 종합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걷기대회

올 첫 발자국 누가 찍을까

道-파주시-관광公 공동개최
30일, 민통선 9㎞코스 개방
DMZ 보호 기금 마련 병행

올해 첫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오는 30일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열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가 개최하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 참가하는 가족 및 일반인, 동호회원 등 1천200여명은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율곡습지공원으로 돌아오는 9㎞ 코스의 길을 걸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군사작전구역이란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이 어려웠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이번 걷기 행사 코스가 포함됐다.

걷기 행사와 함께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다짐과 소원이 적힌 종이를 받아 출·도착지 펜스에 전시하는 Wish Your Dream ▶대형종이꽃을 철책에 달아 평화를 기원해보는 Peacealways beautiful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이광기씨와 박원휘 학생이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생태탐방로를 걸을 계획이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이자 건강 전도사인 아놀드 홍도 이 날 행사에 참여해, 걷기 전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운동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밖에도 DMZ환경 보존을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걸을 때 마다 참가비의 일부를 DMZ일원 환경보전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되고 학생 참가자들의 경우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윤성기자

11.5 X 17.4 cm